

1019(수) 누가복음 1-2장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며 의사였던 누가는(골1:14)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고(16:10,27-36,20:13-23)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신실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이방인 데오빌로는
로마 고위관리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했지만,
이전부터 교제해오던 세속 이방인들과의 관계,
탄탄한 신앙 기반을 가진 유대인들 속에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낮선 신앙 공동체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의 모멘텀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상황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한 1세대 목격자들을 취재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자료를 살피고 치열하게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견고히 서길 바랐습니다(1:3-4).
그렇게 쓰인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로라(1:4)”

이방인들, 얇은 믿음으로 흔들리던 초신자들은
이 기록을 읽어가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깨달으며 결단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견고히 선 그리스도인입니까?

- ❶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 ❷ 성도, 교회로서 명확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졌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누가복음 1-2장